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1. 2. 23(화), 14:00~15:30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회의실(온나라 영상회의)

□ 보고안건

1. 202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기재정계획

□ 심의안건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의직이사 선임(안)
2. 2020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3. 2021회계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4. 직제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결내용

(사회자) 성원보고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이사 28인중 20인이 출석하시어 과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림.

(이사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음.

(사회자) 참석이사 및 연구원 간부 소개

(이사장) 인사말씀

저는 작년 12월17일 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직을 맡게 된 김일재입니다. 오늘 부임 이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사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 참석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선조 기획관리실장님 과 각시도의 이사님들을 비롯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님, 행정안전부 임상규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2월에 행정안전부의 중책을 맡게 된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님과 이범석 지역발전청책관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순은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이사님들의 성원으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금년에는 자치경찰제와 주민참여 관련 핵심 법률재정 논의 등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전환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뉴딜 사업에 개발과 추진,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현안들로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연구원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도, 시도 의회, 행정안전부 및 국정과제 수행 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품질 높은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이사님들의 따듯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다음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음. 보고안건이 2건, 심의안건이 5건인데 보고안건을 먼저 진행하겠음.

o (이사장) 보고안건은 2건으로, 먼저 “202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에 대해 행정예산과장이 설명을 하겠음

(행정예산과장) 202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의견이 없으시면 제1보고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음.

o 〔이사장〕 두 번째 보고안건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기재정계획” 에 대해 행정예산과장이 설명을 하겠음

(행정예산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기재정계획**

*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충청북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재정력지수, 공기업 수에 따라 차등 출연하고 있고, 지방세연구원 보통세 세입 결산 내역에 따라 시도별 차등 출연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시도별로 출연하는 부분과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출연금액을 시도의 재정력, 인구수, 시군수를 반영하여 차등 방안과 시도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통보, 연구과제 확대 등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손희준) 중기재정계획 5년 동안 계획 수립한건데, 지금 충북의 의견을 출연규모나 출연액을 조정액을 조정하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수렴이 가능하신건지 조차 의심들어서요 ,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해야 할 필요가 있디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이니까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시도당 출연금 관련해서는 충북에서 말씀한 것에 대한 일리가 있으니까 별도 검토를 해보시고 중기재정계획은 일단은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봅니다.

(이원희) 중기재정계획은 세입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하고도 연동이 되어야 설득력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출연금 계속 정액 예측, 광역시 출연금도 예측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왜 증액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출 사유 또는 세출과 연동되었을 때 이런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만있으니까, 기금도 적립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 사유를 연동해서 출연금 정액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게 설득력이 있을 듯 합니다.

(이사장) 충청북도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손희준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선조(부산광역시) 이사님께서도 충북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를 해서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의견을 정리한 다음 수입·지출과 연계하고, 출연금 증액과 관련된 논거도 정리하여 이사님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원희 이사님의 의견도 추후에 잘 정리하여 이사님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o (이사장) 심의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제1심의안건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의직이사 선임(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총무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의직이사 선임(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강원도) 권명중 이사 후보자께서 주요 경력을 보면 강원도 교육특별보좌관, 자치단체에서 자문 경력 등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권명중 부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총무과장) 현재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상황, 이사님들은 각지에 계신 상황입니다만, 원주에 계신 이사님이 없는 상황으로 혁신도시 이전에 맞게 지역에 계신 분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 공공기관 취지와 맞게 이사님들을 비롯하여 연구원 자문위원님들을 다양한 지역에서 분야별로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연구원 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이사님 중에는 강원도 관내 대학에 계시는 분이 위촉되지 않아,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추신 권명중 부총장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사로 모시고자 부탁드렸고 참여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 (이사장) 제2심의안건인 "2020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

출 결산(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본부장과 행정예산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기획조정본부장·행정예산과장) ‘2020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원희) 회의서류 30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재정이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럴수록 자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목적성 자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차기이월 사업비 사십이억은 올해 다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출해야 하는 지출이 구속 되어 있는 자금으로 이해가 되고, 차기이월금 십오억원은 일종의 여유자금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별회계의 경우에 십오억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딘가 용도를 지정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맥의 원주 이전비가 여기에 담겨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회계 차기이월금이 십억으로 담겨있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반회계에 돈이 남는다면 앞에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예산과장)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이사님 말씀 내용이 맞습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수익구조가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수수료를 먼저 받고 과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업기간이 6~8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70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 하였고, 2, 3차 과제를 시작하는 시가가 8월과 11월이다 보니 선수입된 수수료의 지출이 차년도에 발생하여 이월사업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센터는 연구개발적립금 항목으로 현재 적립하고 있는 재원은 원주로 이전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임시 거주하지만 향후에 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가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센터 현원은 25명으로 정원 35명을 충원할 경우 추가 공간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적립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부분에서 차기이월금 한 10억은 작년에 계획하였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은 기금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21년 사업에 충당하고자 차기 이월

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총괄부장) 행정예산과장이 설명해 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대비 현원 10명으로 차기이월금이 일정 부분 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적립금은 향후 지방이전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연구공간을 만드는데 활용될 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와도 협의하였습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 (이사장) 제3심의 안건인 “2021회계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본부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기획조정본부장) ‘2021회계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충청남도) 지역사회조사 사업을 신규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서 설문조사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각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는 통계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중복성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의 개요를 좀 봐야 이 사업의 필요한지 지역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작년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중복된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책연구기관들이나 민간 부분에서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 승인 통계에 준하는 그런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결과물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인 통계조사 및 발표가 많고 정례적인 특히 연간·지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통계조사를 발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승인 통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말씀드리면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공식적인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2011년에 기초조사 통해서 전체적인 체계는 마련했습니다. 오늘 짧

은 시간 안에 전체적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가능한 기존에 통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에 지역 단위에서 가장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상반기에 가능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작년에 일부 조사를 한 내용을 보완하여 설문 내용을 설계하고 하반기에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사장) 각 지자체에서도 K뉴딜시대에 맞게 많은 사업발굴 중이고, 중앙부처도 사업 건의를 하고 지역의 사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 발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원에서도 그간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돕는 이런 부분이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연구원에서는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연구원에서 발생 되는 지역통계가 기본적으로는 광역 차원에는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나 광역 안에서의 여러 가지 통계는 분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공표도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시도 연구원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광역을 넘어서 전국단위 통계가 지역 통계가 연계되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 시 정책 방향도 제시한다든지 분석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을 연구원에서 해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역과 상호 비교가 되어 지자체 행정에 참고가 되게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 통계는 2019년 이사회 때 김순은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통계를 취합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취합하면서 하려고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많은 통계를 취합하고 계시는데 그 통계를 분석하여 전국단위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기적으로 제시해드리는 것이 연구원이 각시도와 중앙부처를 지원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지역별 산업별 많은 업체들이 휴폐업이 일어난다든지 합니다. 광역차원에서 분석한다만 전국단위로 가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휴폐업상황이 지역별, 산업별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데이터를 토대로해서 중앙부처에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지자체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유의미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지역정보센터를 활성화 해서 오늘 추경에 있는 사업을 구체화 해서 각 시도와 중앙부처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자치 30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그간에 지방자치 특정 주간에 10주년, 20주년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행정 각 분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평가보고서를 10년마다 발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주년 기념으로 이전에 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조사와 이 신규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통계라는 것은 작년도 통계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3~5년 단위의 정기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목표로 하는 것은 이사님이 말씀하신 10년 단위 정기적인 통계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단년도 통계가 계속이어지면 10년단위 통계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큰 플랜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년도 통계를 계속 수행하면 10년 단위의 10년치가 되었을 때 좀 더 종합적인 통계치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올해는 30주년 관련하여 평가보고서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올해 30년 관련 별도 연구사업으로 계획 중이기 때문에 단년도 조사를 하더라도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 연결지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 표현에 지방자치 30년 이 말이 들어가니까 지방자치 30년을 희망하는 인식조사처럼 이해가 되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매년 주민들이 인식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축척하겠다는 거죠? 30년을 기념해서 조사를 하는 것과 이것은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같은 문항을 가지고 축척 조사를 하는 것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좋아진다 등의 패널데이터를 만드는게 핵심이고 그동안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DB구축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약간 처음 당황한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측 될 수 없는 경비를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인데, 1, 2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숙성도가 없는 것 아니냐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에 대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논의가 되어왔던 사업들이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재원을 무엇으로 하나 봤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재원이 4억

5천이 필요한데 뭐라고 표현되어있는가 하면 재원자체를 전기이월금을 쓰겠다는 건데, 아까 결산할 때 20녀에서 21년 차기이월할 떄 일반회계에서 10억 기금에서 15억 숫자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13억 5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재원이 조금 당황스럽긴했습니다.

(행정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차기이월금하고 불용액을 예상하고 13억 5천만을 예상을 하여 세웠고 결산을 마치면서 기존에 있던 적립금 부분하고 그 부분의 불용액이 남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4억5천4백만원의 재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장) 지방자치 30주년 되는 해여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 관련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포럼도 진행하시고 계시고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연구원도 지방자치 30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30년 미래에 대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북에서도 지방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의회도 사실 컨셉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향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금년에는 연구를 심화 하려 합니다. 연구원에 지방의정센터를 신설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관련된 연구사업도 추진을 하되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도 최근 방문했었고 의장님과도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눴습니다. 향후에 지방의회에 발전과 관련된 연구도 저희가 심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0년 관련되서는 그런 사업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원희 이사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 해주신 것처럼 연구원에서 각종 DB를 매년 이렇게 잘 분석해서 축척해서 DB화해서 시계월 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실제 정책과 행정에도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이사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연구원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실제 현장과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조사하고 DB구축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조사예산을 보면 1억8천이고 전국단위로 만이천명 조사한다고 하는데 아주 어중간한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가지고 국가통계를 대비할 수 있는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게 패널로 들어가면 패널관리가 실제로 돈이 많이들어가고요.

매년 시개월별로 정보를 누적한다하면 한 자치단체 별로 60명~70명도 조사하는데 조사내용이 편차가 많을 때문에 시계열별로 오차 관리가 어려울 것 같고 주민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 서비스별로 편차가 많고 지역 간에 만족도 조사가 비교되면 비교평가가 되니까 지자체 별로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할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국가통계조사하는것과 비교하셔서 샘플을 충분히 확보하시는게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예산과 표본수는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정보 DB구축 에 대해 제안을 드려봅니다만 이 기회에 다른 시도연구원에 보면 개별적 조사할 DB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같이 묶어서 연구원 플랫폼에서 DB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어떤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도 고민했던 것이 샘플 수를 어디까지 확대해서 할 것인지 부분인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과 통계는 아주 밀접한 부분이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많은 샘플 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욕심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사례를 보면 초년도에는 시범사업처럼 추진하였고,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역량을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타 기관들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기초연구 형태의 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DB구축 관련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오셔서 당장 3월에 각 시도연구원과 협력 사업으로서 2020년도 성과보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기들을 마련해서 이사님이 말씀해주셨듯이 DB구축과 더불어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와 데이터가 결합 협업을 통해서 결합되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협업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도연구원과의 협의회가 사실 구축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적극 활성화 시켜서 공동 관심 상황에 대하여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장을 마련해서 연구성과나 각종 DB가 공유되게 하고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금년에 1사분기 내에는 시도연구원과 같이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침체되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연구원에서 그동안 많은 지역발전 대안도 연구한게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각 시도 연구원에서 연구해놓은 코로나19와 연계된 지역 활성화 전략 자료도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시도도 공유하게 하고 중앙부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B뿐만 아니고 어려 사업들을 시도연구원과 협업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 〔이사장〕 제4심의안건인 “직제및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행정예산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행정예산과장) ‘직제및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 〔이사장〕 제5심의안건인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행정예산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행정예산과장) ‘퇴직급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손희준) 실적정과금은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금인가요? 거의 평균임금과 같이 동일한가요?

(총무과장) 연도말에 지급하는 실적성과금이 맞습니다. 각 개별 연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구자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평가 반영한 성과실적금마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내용

입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2021. 2.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겸 이사장 김 일 재

▢ 출석이사 20인(이사장 포함)

김일재, 임상규, 조인동(박정환), 김선조, 김정기(배정식), 여중협, 유득원, 안승대(최평환), 차호준, 한순기(신성영), 김하균, 명창환(유영민), 김장호, 박일웅, 김순은, 김태영, 김재훈, 손희준, 이원희, 이재원

※ (괄호)는 대리참석자

▢ 참석 직원

부원장 박해육,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소장 이삼주,
기획조정본부장 신두섭, 자치분권제도실장 주재복
지방재정경제실장 조기현, 지역포용발전실장 박승규
기획총괄부장 김상기, 재정투자조사부장 김남주
재정투자평가부장 함윤주, 연구기획과장 이용애
행정예산과장 권경철, 총무과장 김상우

#관련 사진